

다산포럼

일본은 적인가



김정남 언론인

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게 된 이유를 이리저리 구척하 게 돌려 말해 왔다. 그러더니 지난 6일, 아베는 징용 문제를 놓고 한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아 양국 간의 신뢰가 크게 훼손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한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참에 경제적으로 한국의 기를 꺾어 놓자는 계산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아베의 숙원이라 할 헌법 개정이 라는 정치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등 조선 침략 이데올로기의 맥을 잇고 있는 아베한테 이런 보복을 당하는 것은 참 아프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틈을 타 더욱 치밀하게, 정밀 타격을 준비해 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대응은 무능해 보이고 미답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한일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느끼고 겪은 한 두 가지 경험을 전하고 싶다. 아마도 1993년 1월쯤이었을 것이다.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YS(김영삼)와 재야인사들과의 면담이 63빌딩에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흥성우 변호사가 그때 막 떠오르기 시작한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돈을 내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며 "우리도 이만큼 살 만하게 되었으니, 그분들의 생계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일본 정부는 다만 그 진실을 밝히고 그 역사적 죄과를 사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3월 13일, YS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국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제 호국과 세계 대 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역사와 세계 앞에 사죄하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문민정부가 막 출범한 직후라 그 발언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로부터 얼마 뒤 주일 한국대사가 나를 찾아와 자신의 외교관 생활 중 일본 앞에서 일찍이 그렇게 당당한 것을 본 적이 없었노라던 모습이 지금도 새롭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도덕적 우위마저도 없고, 경제 보복까지 당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2008년 아니면 2009년이었을 것이다. YS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내가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됐다. 도쿄는 물론 오사카, 교토, 나라까지 들렀는데 나이 든 교포들이 때때로 차려입고, 전직 대통령과 사진 찍

고 자기들이 손수 만든 떡과 잡채와 김치 등을 들고와서 대접하던 그때뜻하고는 눈물겨운 정경들이 아련하다. 그 외 왜사대 대학에서 YS의 특강 연설이 있었다. YS는 정중들 앞에서 "나는 일본을 원수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야, 일본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통령 재임 중 잘한 것 하나 있다면 나는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유치를 꾀고 싶다. 한국과 일본의 2000년 역사에서 이룩한 최초의 협력이 2002년 한일월드컵이었다. 내가 죽을 때 한국의 청년들을 향해 우리들의 이웃인 일본의 청년들과 손에 손잡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향해 나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일본이 지난날의 식민 지배와 착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 이 있다면, 그때 일본은 도덕적 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기꺼이 손잡고 미래로,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는 한국 민주화 투쟁의 고비 고비마다 일본 시민사회의 양심으로 부터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일본 안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이 적인가?'를 묻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교단에서

길 하나 건너는 나그네



김진구 일신중 교감

어서 한산하다. 그런데 노란 모자, 노란 조끼 차림의 노인 네 분이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노란 깃발을 움쭉이고 있었다. 구청 노인회에서 나온 분들이다. 이 더위에 학생은 물론 행인도 드문데 길거리 사각 모서리에 서 있는 모습이 영 아니다 싶었다. 학교에 차를 주차하고 음료수를 챙겨서 갔더니 "집에서 노느니 소일삼아서 활동한다"며 밝게 웃으셨다. 이와 같은 교통 안전 도우미 말고도 학교에는 할머니 두 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 화장실 청소를 해주신다. 한 달에 10일간 이렇게 교통 지도와 청소를 하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국가가 지급 한다. 연세가 70대 중반이 한 분이고, 다섯 분은 모두 80세가 넘었다.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실상인데 앞으로는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용돈도 별로, 손주들에게 선물도 줄 수 있다는 당당함(?)도 좋아 보였지만, 몸과 정신이 온전하여 본인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복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되었다. 방학 동안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봉사 활동을 몇 번 갔다. 하모니카 동호회에서 단체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하루 내내 함께 생활도 했다. 말

이 위문 공연이고 봉사 활동이지 사실은 미래의 체험이란 표현이 더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루 8시간 4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비율이 1대3 정도였고 나이는 70대 초반에서 100세까지 다양했다. 앉아서 손발을 움직이는 건강 체조를 시작으로 종이 접기, 미술 치료, 물리 치료, 점심 후 낮잠 등 하루 일정이 풍채했다. 나는 하모니카로 가요 몇 곡 연주하고, 송가인이 불러서 전곡을 들썩인 '한 많은 대동강', '용두산 엘레지' 노래도 불렀다.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가장 빠르게 이어주는 본능의 매개체인가. 환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손이 불편하면 발로 장단을 맞추고, 손발 모두가 움직이기 힘든 분은 운명으로 흥겨워하였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노치원(老稚園)이라 부르기도 한다. 유치원(幼稚園)에 빗대서 나온 명칭이다. 아기가 자라 상층국으로 성장년의 정점에 이른 후 하향 곡선으로 노인이 되는 대칭 구조의 인생이다. 유모차를 뺐다가 실버카로 갈아탄다. 식사를 도와줘야 하고, 놀이 학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낮잠을 자는 것은 비슷하지만 유치원은 부모 손잡고 등원

하고, 노치원은 자녀 손잡고 등원하는 차 이랄까. 대체로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맑지 못한 분들로 아픈 현상은 단순하지만 등원하게 된 사연은 가지가지이다. 너무나 적적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 낮 시간이나밤 간병에 지친 가족들을 위해, 직장 생활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치매 진행을 늦추거나 간단한 물리 치료를 위해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 노치원의 장점은 낮 시간을 이렇게 함께 지내다가 저녁이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나 보호자들도 모시지 못한 자괴감이 덜하다. 도로 건너편에 유치원이 있다. 아이들이 하원 준비를 한다. 선생님과 배품인사를 하고 손 흔들며 노란 차에 오른다. 이곳 노치원도 귀가 시간이다. 인생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유치원에서 노치원으로 건너오는 나그네다. 한평생 길 하나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재각각이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비슷하다. 오늘은 내가 앞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지만 머지않아 이 어른 신들이 잘될 사라지듯 가시고 나면 저 자리에 우리들이앉아 있을 것이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가보려고 한다.

기고

'아트 광주 19' 세계가 주목하는 아트페어로



임원식 광주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장·예총 회장

서 168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두 개 관에서 치러졌던 행사를 세 개 관으로 확대해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18개 갤러리, 국내 71개 갤러리, 개인 작가 79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 페어가 될 것이다. 사실 2년 전 '광주 국제 아트 페어'는 예산 정산의 불투명, 공모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하여 행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를 이유로 과거에 주관해 왔던 단체가 배제된 가운데 대신 광주예총이 이 행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주관 단체로 나서게 되었다. '아트 페어'란 간단히 말하자면 그림을 팔고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작품성 위주의 비엔날레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성이나 상업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성과 축제성을 그 가치로 내세우기도 한다. 모든 예술 작품은 최종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비로

소 예술적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술 작품 역시 수용자가 관람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소장하게 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 사회주의의 구소련이 붕괴된 직후 러시아의 예술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심을 거닐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진기한 현상은 수많은 화가들이 거리에 나와 직접 그림을 팔거나 초상화 그리기로 호객을 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사회주의 시절엔 국가가 화가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지만, 체제가 붕괴되니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이라는 안내원의 설명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의 창작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동인인 '시장성'이 선순환적인 예술적 소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 광주', '예술 광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아트 페어에서 특히 이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행사 주제는 'One Piece, One Peace'. '미래를 꿈꾸는 예술 장터'를

지향하는 슬로건이다. 이는 아트 페어의 핵심인 예술 작품의 소장과 더불어 '1가 구 1 작품'이었던 예향 남도의 면모도 되살려 아트 광주만의 색을 입힌다는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광주는 문화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각 예술 분야에서 창조적 인력이 풍부하다. 광주가 이번 아트 페어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 가야 한다. 또한 광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현상으로 만들어 간다면 분명 세계가 주목하는 아트 페어가 될 것이다. 이번 '아트 광주 19'는 시민 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메세나 운동을 조직화하여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나아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社說

한빛원전 안전 외면 '실적 중시' 사고 불렀다

지난 5월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안전보다 가동 실적을 중시한 원전 측의 안전 불감증이 짙었다. 무자격자의 제어봉 조작과 법령 위반에 더해 폐쇄적 인 조직 문화가 부른 인재(人災)였다 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옛 그체 한빛 1호기 사고는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 및 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특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당시 제어실 근무자들이 원자로 출력 계산을 잘못했고, 제어봉 조작은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채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어실 위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안위에 열출력 급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전 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 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 의식이 결여된

조직 문화, 원안위 현장 대응 능력 부족 등을 지목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비 기간 연장 등으로 발전량에 감소하면 감점을 부여하는 한수원의 발전소 평가 지표다. 안전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직원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정(工程)을 더 우선했다는 게 원안위의 진단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한빛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원전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자동 정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부실사공은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불식 하려면 직원들이 원전 가동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안위가 독점하는 안전 규제 감시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광양 백운산 계곡 위험' 그토록 강조했던만큼

'광양 백운산 계곡에서 올해도 또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쫓아온 18세 고교생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광주일보가 기획보도를 통해 위험을 경고한 지 불과 사흘도 안 돼서 발생한 사고다. 사고 지점은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동곡계곡으로 수심 2m가 넘는 곳이다. 이곳에서 지난 9일 고교생 A(18)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혼자서 수영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구명환 등 구조 장비가 없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목격자들의 말이다. 본보는 사고가 있기 사흘 전 이곳을 둘러봤다. 확인한 결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장비는 계곡 인근이 아닌 도로가에 설치돼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요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휴가철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1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는 광양시의 말과 실제 현장은 달랐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안전대책 미흡을 지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기획기사(광주일보 2018년 8월 6일자 6면)였다. 이곳은 이전에도 여름철이면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당국은 신문사에 항의성 전화를 했을 뿐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광양시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성불계곡 등 광양 지역 4대 계곡에선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물놀이 도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울머름에도 광양시에서 고용한 안전요원 증 상당수는 인명구조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무자격 고령자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실한 안전 대책이 계속되는 한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피하기는 어렵다. 광양시는 말로만 안전을 외치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둘러보고 적절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그림 속에서 할머니 두 분이 햇빛을 가리기 위한 큰 모자를 쓰고 대파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한 분은 쭈그러 앉아 대파를 뽑는데 다른 한 분은 선 채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작업을 한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다. "허리 아픈디 앉아서 뽑지 그래요?" "앉아서 일하면 무릎이 더 아픈게요양~"

'농부 화가' 김순복(62) 씨의 그림에 담긴 농촌의 모습이다. 직접 농사를 짓는 그는 딸이 선물해 준 파바카스텔 72색 색 연필로 농촌의 일상을 화폭에 담고 있다. 2017년 5월 첫 전시회 '순진'을 시작으로 고소한 그림 전시회를 기획한 이승미 행촌미술관 관장은 그의 작업을 두고 '손으로 농사짓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행촌미술관이 운영하는 수운아트스페이스에 가면 전시된 그의 초기작과 최근작을 볼 수 있다. 그의 그림에서는 농촌의 고단하면서도 행복할 삶의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흘러나온다.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에는 '뭇난이 미술관'이 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조각가 김갑삼 씨가 개관했다. 미술관 바깥과

내부에는 배가 부룩하고, 눈이 찢어지고, 파마머리를 한 '뭇난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수년시절의 동심과 부모와의 가족에 등이 유머러스한 작품으로 형상화돼 있다. 미술관 내부에는 무인 카페 공간도 마련돼 있다. 영상간 길을 자전거로 즐기는 라이더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찾곤 한다. 방명록에 남긴 미술관 방문객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진다. "올 엄니 같은 미학 동심이 살아내네요."

광주·전남에는 곳곳에 사립 미술관이 있다. 광주 동구 운림동 12-1에는 5개 미술관이 밀집돼 있어 '미술관 벨라'로 불린다. '연흥도 미술관' 등 전남에도 보석 같은 미술관들이 산재해 있다. 단순히 그림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아트 피서'를 즐겨 보면 어떨까. 여행이나 등산 북 차림을 한 중장년들로 북적이는 일상 속의 즐거운 미술관을 상상해 본다.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동네 미술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